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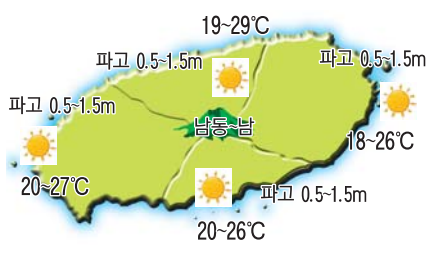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8일 화요일 음 4월 28일 (5물)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0°C, 낮 최고기온은 26-29°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and 20% chance of rain/snow.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4) and moonrise (03:53).

Table with 2 columns: 해질, 달지기. Rows show times for sunset (19:42) and moonset (17:47).

Table with 2 columns: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Rows show PM10 and PM2.5 levels (PM10: 보통, PM2.5: 나쁨).

Table with 2 columns: 주간예보,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tomorrow, and the day after.

월드뉴스

엘런 미 재무장관 금리 인상 시사

“소폭 인상 미국에 플러스”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

보도에 따르면 엘런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금리가 결국 약간 상승하는 환경이 된다면 사회적,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점에서 결국 ‘플러스’(도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엘런 장관은 미국 물가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자 코로나19로 조성된 공급망의 병목현상, 정부 지출의 급증과 같은 전환적 확장 재정 정책을 옹호했다.

이 때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4조 달러(약 4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해설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또 “미국은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너무 낮은 금리와 싸우고 있다”라며 “우리는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올라 200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것(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복귀)이 여러 상황을 조금 덜어 줄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좋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라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한라칼럼



이윤형 선임기자

목을 치듯이 ‘썩둑’... 나무도 아프다

해마다 봄철에는 전정이란 미명 아래 가로수나 도시숲들이 가지치기로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 등을 완화시켜 주고, 여름철 녹음을 제공하는 나무들이 과도하게 잘려나간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마주한다.

징하는 나무다. 제주에 자생하는 상록 활엽수로 병충해에 강하고 대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가로수·조경수로 가치가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형이 좋아 풍치수로서 역할도 한다.

지치는 나무에도 해로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또 하나 문제는 애써 가꾼 나무를 가지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것이다.

으로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숲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엘린마당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을 대폭 확대하여 착한 임대인의 많은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 ‘메타버스’



박대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정도로 알고 있었다.

육박한다고 한다. 하나의 거대 도시가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제페토’의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억 명이 넘는다고 한다.

Advertisement for Jeju Halla Park products, featuring '감귤' (citrus) and '원터프린스' (winter prince) brands.

Advertisement for Jeju Halla Park products, featuring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nd '원터프린스' brands.

Advertisement for Jeju Halla Park products, featuring '감귤묘목' and '아스미 4, 5년생' brands.

Advertisement for Jeju Halla Park products, featuring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and '원터프린스' brands.